

국제행사 앞둔 광주 ‘불법광고물과 전쟁’

올해 10만5905건 적발... 대부분 아파트 등 분양 광고 도시미관 해쳐 눈살... 단속 강화·계시대 확대 등 추진

광주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등 대형 국제 행사 출몰이 앞두고 도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속이 특정 지치구로 집중되는가 하면 공공기관 등에서 내건 불법 현수막은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방경찰청, 자치구, 옥외광고협회 등 36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주간 불법 광고물 단속을 펼친 끝에 10만5905건을 단속했다. 과태료도 471건 7억4700만원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460건) 10억400만원에 근접한 상태다.

단속된 불법 광고물은 대부분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 등 건설업체들의 불법 현수막을 주를 이루고 있으며,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식당 등 개인 자영업자의 불법 현수막도 늘어나는 추세다. 모 건설업체는 최고 4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1만2702건을 단속했으며, 북구 4만2324건, 동구 2만3022건, 광산구 2만0097건, 서구 5360건, 남구 2400건 등이다.

이를 놓고 불법광고물이 많은 유습업소 밀집지역이 많은 서구의 단속실적이 타자치구에 비해 너무 저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북구의 단속건수는 서구보다 8배 가까이 많다.

공공기관 등이 도심 곳곳에 내건 현수막을 알리는 시선도 끊이지 않는다. 특히 일부 공공기관의 현수막은 나무와 나무에 고정 끈이 묶여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북구에서 식당을 하는 한 시민은 “장사가 너무 안돼 가게 앞에 점심특선 메뉴를 알리는 5만원짜리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번나절도 안돼 철거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시는 불법 광고물이 해소를 위해 올해 1억원을 들여 계시대 16곳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지만, 효과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광주 도심에 설치된 현수막 계시대



도심 곳곳 주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때문에 광주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진은 도로 주변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는 공무원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는 380곳, 벽보판은 381곳이지만, 영세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10일 기준 2만7000여원에 이르는 현수막 게시대를 이용할 여력조차 없는데다, 홍보를 원하는 곳에 게시대가 설치된 경우도 드물기 때문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제도시 광주의 이

미지를 높이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강력한 단속과 함께 현수막 게시대 확대 등 광고물 양성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도시공사 사상 최대 경영 성과

전년 대비 840억 매출 성장 영업이익도 342억 증가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가 2014년 결산결과 사상 최대의 경영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액 2723억원, 영업이익 739억원 등 전년 대비 840억원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739억원으로 전년 대비 342억원의 이익 성장세를 거뒀다.

2011년 전후로 예상되던 공사 안팎의 경영위기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완벽히 극복한 셈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재정·사업·조직·인력 등 경영 전반에 걸친 철저한 진단을 통해 보다 경쟁력 있고 내실 있는 강소조직으로 체질개선에 성공했다. 이는 모든 임·직원이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펼친 결과, 최대의 경영실적을 달성하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광주도시공사의 각 분야별 2014년 경영성과다.

2014년 당기순이익은 171억원으로 2011년 이래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는 비상매각체제 운영을 통해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실시했던 것이 매출액 증대의 주요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조직진단을 통한 내부 역량을 강화했다. 공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경영효율화 계획을 수립, 추진했으며 자구적 혁신 노력을 위해 정·현원을 각 4명, 3명 감축했다.

한편 신속한 조직구조 확립을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 양 분부 체제로 정비했고 4단계 결재구조에서 3단계 결재구조

로 결재단계를 단축,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한 조직으로 변모하는 데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남2지구 도시형생활주택, 선운지구 공공임대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아파트를 꾸준히 공급해왔으며 진곡일반산업단지, 평동2차산업단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등 주요 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노후주택재정비사업사업인 호두메마을은 오는 4월말이면 준공돼 새롭게 선보일 예정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최초의 재생단지인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나눔경영이다. 이미 전국 최초로 ‘참조적 행복복지 모델’을 수립해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지역민 삶의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도시공사 관계자는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에 멈추지 않고 사회공헌 체제를 보다 강화 위해 나눔 경영 전략을 수립했으며, 매년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매년 당기순이익의 5%를 적립해 사회공헌 재원으로 활용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을 실천해 지역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사회공헌대상 2년 연속 수상하는 등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더불어 사는 광주, 행복한 시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앞으로 도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초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진해 균형제’에 나타난 누리비 **광주U대회 조직위원회는 최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에서 펼쳐진 ‘진해 균형제’ 현장을 찾아 대회 홍보활동을 펼쳤다.** <광주U대회 조직위 제공>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사회취약계층 시설 130곳 무료 수질검사

17일까지 신청 접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7일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 장애우 등 사회취약계층이 장시간 생활하거나 활동하는 시

설 130곳을 대상으로 무료수질검사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의 지하수, 정수기 통과수, 칼, 도마 등 주방 식자재를 대상으로 무료검사를 하며, 연구원에서 현지 방문

해 정수기 관리요령 등 현장교육과 함께 검사 결과도 통보한다.

수질검사 신청은 오는 17일까지 시보건환경연구원(062-613-7601~7604)으로 하면 된다.

정수기 시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 검사과장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정례화하도록 유도하는 등 깨끗한 위생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야생진드기 물렸을 땐 즉시 보건소로

4월부터 급증...야외활동주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이 봄철 야생진드기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온이 올라가고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4월부터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야생진드기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SFTS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야생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면 6~14일의 잠복기 이내에 38~40도에 이르는 고열,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증상이 동반되며, 혈소판 감소와 백혈구 감소 등이 발생하고 중증의 경우 중추신경계 이상 소견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

진드기 등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긴 바지, 양말을 착용하고, 풀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 또 야외활동 후에는 반드시 입었던 옷을 벗어 세탁하고 몸을 씻어야 한다.

국내에서 발생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을 보면, 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층에서 진드기 활동이 활발한 5월~9월에 발생하지만 11월까지도 환자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정재근 시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장은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 진드기 검사를 의뢰하면, 연구원에서 진드기 분류와 함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면서 “고열이 나고 소화기 증상이 있다면 곧바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10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9평 20층 중 10층, 양동 하천방향 원룸형, 내부 깨끗 현, 보5백에 월 50만원 임대 중 대출 3000만원 가능 매매가 7200만원(일시불 조정가)
- 17평 20층 중 10층, 창가 코너, 전망 좋음 전체 울수리, 원룸형, 즉시 입주 가능 대출 2000만원 안고 매매가 - 52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감청/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6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정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천경매 H.P 010-3605-5000